



최근 칠레의 연금개혁 동향과 시사점

류건식 선임연구위원

요약

■ 칠레의 연금제도는 주변 국가들을 비롯해 다른 선진국에서도 벤치마크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OECD, 세계은행 등 다수의 국제기구에서도 여러 차례 우수사례로 소개될 만큼 가장 선진화된 제도로 평가됨. 이와 같은 평가를 받게 된 것은 1981년 공적연금 민영화를 통해 확정기여형 중심의 사적연금제도를 도입하였고 그 이후에도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시행해 왔기 때문임.

그 일례로 칠레 정부는 2008년 금융위기로 인한 연금자산의 가치하락, 재정악화 우려 등으로 연금제도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을 추진하였음. 개혁의 목적은 근로자들의 사적연금 가입률을 보다 높이는 한편, 저소득층 지원을 통해 전 국민의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연금제도를 마련하는 것이었으며, 이를 위해 새로운 공적 연금제도인 기초연금 및 보충연금제도를 도입하고 사적연금 가입을 위한 인센티브를 보다 확대하였음. 이러한 칠레의 연금개혁 사례를 볼 때 우리나라도 여성 및 저소득 근로자의 노후불안을 해소하면서 사적연금 시장의 성장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연금제도의 개선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칠레는 1981년 부과방식의 공적 연금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대신, 민영화를 통해 공적연금을 개인별 계좌(Individual Account)로 관리하는 연금개혁을 실시함.

- 민간연기금관리회사인 AFP(Administradoras de Fondos de pension)를 설립하고 AFP에서 제공하는 개인별 연금계정(PSA: Pension Savings Account)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규정함.
- 1994년에는 기존의 확정급여형(DB형) 공적연금을 민영의 확정기여형(DC형) 연금제도로 완전히 대체·전환함.¹⁾

1) 이러한 칠레의 개혁은 인접국에 영향을 미쳐 아르헨티나(1994), 볼리비아(1997), 엘살바도르(1998), 페루(1993), 우루과이(1996) 등도 칠레형 모델에 따라 연금개혁을 실시하였음.

■ 2008년에는 금융위기에 따른 연금자산의 가치하락, 재정악화 등으로 연금을 제대로 수급하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함에 따라 연금제도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이 이루어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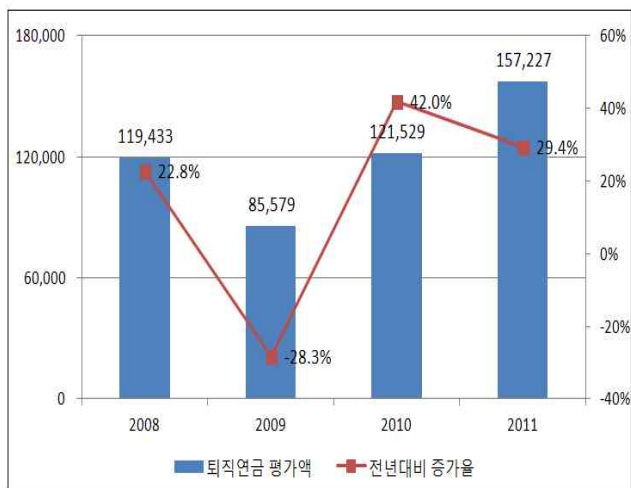
- 연금개혁은 근로자들의 사적연금 가입률을 높이는 한편 저소득계층의 지원을 통해 전 국민의 노후 생활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짐.

■ 이러한 연금개혁은 사적연금시장의 성장을 견인하는 계기로 작용하여 2011년 기준 사적연금 시장규모는 약 1,613억 달러, GDP 대비 79.0%에 이룸.

- 2011년 말 기준 퇴직연금 가입자 수는 886만 명으로 지난 10년 동안 약 41%의 누적성장률을 보이고 있으며 퇴직연금 평가액(적립자산)은 2008년 말 대비 31.6% 증가함.
- 개인연금의 성장세도 두드러져 2011년 말 개인연금계좌 수는 60만개로 2008년 말 대비 37.3% 성장하였으며 개인연금자산평가액이 2008년 말 대비 40% 증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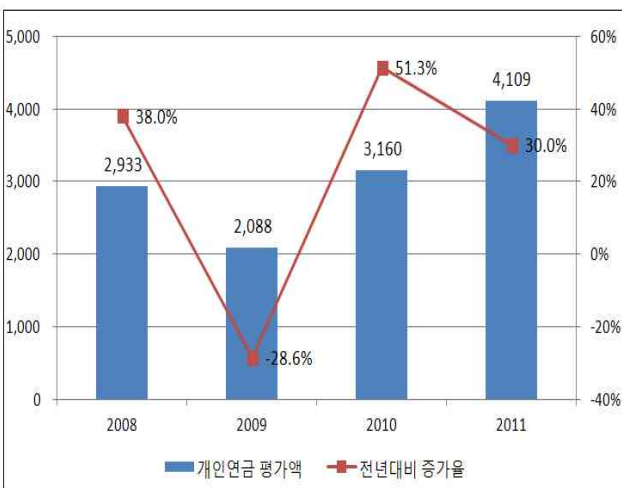
〈그림 1〉 칠레 퇴직연금 평가액 및 성장률

(단위: 백만 달러, %)



〈그림 2〉 칠레 개인연금 평가액 및 성장률

(단위: 백만 달러, %)



출처: 국제연금감독기구(IOPS) 홈페이지.

■ 2008년 연금개혁의 주요 내용은 저소득층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새로운 공적연금 도입, 퇴직연금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여성과 저소득계층을 위한 지원금 제공, 개인연금 가입을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 확대 등임.

〈표 1〉 2008년 칠레 연금개혁안의 주요 내용

구분		개혁 내용
1층 공적연금		저소득층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새로운 제도인 기초연금(PBS) 제도와 보충연금(APS)제도 도입
2층 퇴직연금	모니터링 강화	- 기업의 적립금 납입의무이행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 자산운용규제 완화와 동시에 자산운용에 대한 정부의 모니터링 강화 - 자영업자 가입의무화
	지원금 제공	18세 이상, 35세 이하의 저소득근로자에게는 정부가 일정금액의 추가 기여금 제공 - 여성을 대상으로 출산지원금(Voucher for Children) 제공
3층 개인연금		- 저소득층을 위한 납입금의 일정금액을 정부가 추가로 지원 - 세제혜택 확대

■ 저소득층을 위한 새로운 공적연금제도 도입

- 사적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65세 이상 저소득계층을 위해 새로운 기초연금(PBS: Pension Basica Solidaria)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함.
 - 기초연금의 대상을 소득하위 40%에서 2012년까지 소득하위 60%까지 점진적으로 확대
- 또한 개인별 연금계정에 가입한 사람 중 일정 구간의 소득계층에게 보충급여를 제공하는 보충연금(APS: Aporte Previsional Solidario)²⁾제도를 신설함.
 - 개인별 연금계정 급여가 2011년 기준 25만 5천 칠레페소(약 475달러) 이하인 자에게 지급함.

■ 퇴직연금운용 모니터링 강화 및 지원금 제공

- 자영업자에 대해 퇴직연금 가입을 의무화하고 기업이 제대로 퇴직연금을 납부하는지³⁾, 자산운용이 규정에 맞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모니터링을 보다 강화함.
 - 자영업자의 퇴직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임의가입형태에서 강제가입형태로 전환함.
 - 또한 연금펀드의 해외 투자비중은 80%까지 완화하는 대신, 연금감독기구(Superintendency of Pension Funds Administrators)⁴⁾에 의해 자산운용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함.

2) 보충연금(APS)의 영문표기는 Social Security Solidarity Contribution, 기초연금(PBS)의 영문표기는 Basic Solidarity Pension임.

3) 18세 이상 60세 이하 여성 그리고 65세 이하 남성이 근로소득을 창출하는 시점에서 자동적으로 가입의무가 발생하며 기업은 의무적으로 근로자의 월소득의 10%를 적립하도록 규정함.

4) 연금금 운영은 투자전문기관인 민간연금관리회사(AFP)가 담당하되, 연금금 감독은 노동사회복지부 산하 연금감독청(SAFP: Superintendency of Pension Funds Administrators)이 담당함.

- 또한 현재 자녀가 있거나 앞으로 자녀를 낳는 모든 여성을 대상으로 2009년부터 일정한 출산지원금을 제공함.
 - 2009년 기준 자녀 1인당 26만 칠레페소를 출산지원금으로 퇴직연금계좌에 적립해주고 해당 금액은 65세 이후부터 인출이 가능하도록 함.
- 특히 18세 이상, 35세 이하의 저소득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정부가 퇴직연금계좌에 일정 금액을 추가로 적립해 주는 제도를 마련함.
 - 대상자는 국가 최저임금의 1.5배 이하를 받는 근로자이며 정부가 퇴직연금 납입금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납입함.

■ 개인연금가입을 위한 인센티브 확대

- 정부는 개인연금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납입금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을 15% 확대하여 개인연금의 가입을 적극 유도함.
 - 또한 납입금이 너무 적어 세제혜택 효과가 미미한 근로자를 위해서는 연간 납입금의 15%를 정부가 추가로 적립해 주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함.
- 해당 지원금은 매년 지급되지만 누적한도가 있으며 한도는 법정 최저납입금액의 10개월분 또는 가입자 적립금의 6개월분 중 낮은 금액임.

■ 칠레의 연금개혁이 여성 및 저소득 근로자의 노후불안을 해소하면서 사적연금시장의 성장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진 점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도 여성 등 취약계층의 노후소득을 보다 강화하고 사적연금의 가입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연금제도의 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저소득계층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공적연금제도를 개선하고 소득계층별 연금세제의 차별화, 일정한 정부지원 등을 통해 저소득계층의 사적연금 가입을 유도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칠레에서 보는 것처럼 연금가입의 의무화를 통해 연금제도의 노후소득보장기능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수익률 제고를 위해 사업자 등에 대한 체계적인 연금감독이 요구됨. [kiri](#)